

전북자치도 2단계 특례 발굴 본격화

익산시, 전북특별법 주요내용·사례 중심 특례 발굴 요령 교육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 발굴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에 집중한다.

시는 28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국·소·단장과 부서장 및 6급 계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장세길 전북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 전북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중심

으로 특례 발굴 요령을 공유했다.

다음달에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익산시 특례 발굴 추진단을 꾸려 2단계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현을 익산시장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2단계 특례 발굴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익산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을 이끌 2단계 특례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전북자치도 출범에 맞춰 국가식품플러터 기반의 식품산업과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 특례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중앙동 빈칸채우기 프로젝트를 익산과 타지역(세종, 서울, 전주)에서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빈칸채우기 프로젝트 성료’

익산시, 중앙동 재생 로컬 비즈니스 창업 교육·DIT 리모델링 진행

익산시가 중앙동 재생을 위해 빈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중앙동 빈칸채우기 프로젝트가 익산과 타지역(세종, 서울, 전주)에서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동 빈칸채우기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익산역 앞 옛 건물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집단지성 기반 공간 재생 프로젝트이다.

참여자들은 로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창업 교육을 받아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했다. 여럿이 함께 작업하는 DIT(Do it together) 방식으로 직접 공간 리모델링에 참여하며 공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특히 기존 창업 교육들과는 달리 실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참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도와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도왔다는 평가가 가득했다.

향후, 해당 공간은 복합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청년·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해 성공적인 창업과 문화공간의 탈바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광대학교 건축과 학생은 "중앙동 토박이로서 동네를 바꿔가는 일에 직접 참여해 보다는 경험이 매우 소중한 것 같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중앙동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킨로드 조성,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발맞춰 익산문화도시의 중앙동 빈칸채우기 프로젝트가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본격 가동

안정적 지역정착 위한 기업 개선 요청사항 수렴 투자부터 상담까지 전 과정 종합 지원체계 마련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7일 시청 면담실에서 군산시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고 원스톱으로 종합지원 하기 위한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인력 확보 및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전

력공급 △화학 안전사고 대비 △도로 시설 확충 △산단 도로·가로수·가로등 관리 △교통체계 개선 △우수공급 및 폐수처리 등 기업의 개선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허가 행정처리를 비롯한 유틸리티, 인센티브,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사항에서도 14개 관공부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기업지원 원스톱 TF팀을 통해 군산 새만금 산단의 기업 유치에 가속화하고, 투자기업이 지역기업으로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부시장은 "군산 산업단지의 기업 수가 증가하고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7일 시청 면담실에서 군산시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고 원스톱으로 종합지원 하기 위한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상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시행

군산시가 쾌적한 경관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가로수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로변 건물 가지 접촉과 신호등·교통표지판 가림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도시미관향상, 쾌적한 보행이에 군산시는 봄철이 되기 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목의 생육과 수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가지치기 대상은 대학로 등 산업단지를 포함한 26개 주요 노선의 이팝나무, 느

티나무 등 5,500여주가 해당되며 나무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청 부근의 조촌로 은행나무는 특화전정사업 시범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된다. 특화전정이란 가로수의 수형을 사각 또는 원형 모양으로 선택, 적용하고 매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특화전정사업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미관 창출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 등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정체

나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에 따라 군산시는 시범 특화전정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군산 전역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정사업으로 시민불편을 줄이고 도심 속 자연공간인 가로수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목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수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연중 운영

2월 10일부터 중단됐던 군산시 민원상담실 운영이 지난 28일부터 재개됐다.

그간 민원상담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을 앞둔 2월 10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다.

운영 재개를 통해 종합민원상담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민들의 권리보호,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종합민원상담실에서 생활에 필요한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

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무료 상담은 전문 분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권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은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민원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에는 법률상담 △매주 화요일은 법무 상담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에 진행된다. △건축법률 상담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지역 소식 통

이중선 익산시의원, 화재 취약 전통시장 대책 촉구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은 (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28일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특성상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통시장에 필수적인 화재공제보험지원과 화재알림시설 수리 비용 등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등록 점포 등의 사업자 등록을 권고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익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대상은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18~39세 청년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용자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6년까지이며, 자녀 수에 따라 1차녀 가구는 최대 8년, 2차녀 이상 가구는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은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